

## 후원안내



### 후원미사 안내\*

매월 세 번째 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후원회원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3월 후원미사는 19일, 4월 후원미사는 16일, 5월 후원미사는 14일에 봉헌합니다.  
참석하실 수 있는 후원회원은 성북구 보문동에 위치한 **노동사목회관**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문의 / 02.924.9970~1

### 2018년 1월 후원회원 후원금 사용 내역서\*

#### 수입내역

수입 총액	29,360,068	전월이월금	2,427,909
지 로	2,356,230	우리은행	10,494,249
국민은행	5,744,370	하나은행	2,396,130
조흥은행	85,020	신한은행	1,110,130
외환은행	817,610	제일은행	1,655,020
농 협	1,585,290	기업은행	248,110
우 체 국	70,000	지정기탁	370,000
		교구보조	-

#### 지출내역

항 목	지 출	세부내역	
단 체 찬 조 비	베들레헴어린이집	6,500,000	인건비, 주부식비, 교육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베다니아의 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벗들의 집	925,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행사비 등
	마고네공부방	1,200,000	간식비, 교육비 등
	사랑의집	1,500,000	주부식비, 수도광열비, 생필품비, 의료비 등
	몽골공동체	200,000	제전비
	남미공동체	300,000	제전비
	상호문화센터	700,000	한글반 외 운영 프로그램 비용 등
	소 계	12,825,000	
	지원금	노동사목위원회	3,450,000
운영비	이주사목위원회	9,943,640	운영비 등
지정기탁금	지정기탁	370,000	산재, 진폐환자 가정 생활비
지출 총액	26,588,640	잔액(이월금)	2,771,428

### 후원계좌 안내\*

**우리은행** 454-006742-13-007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국민은행** 093-01-0297-691 (재)천주교서울대교구유지재단

## 신부님글

여러분은 언제 가장 행복하신가요? 본당에 있던 시절 중고등부 미사 시간에 학생들이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새 신부 시절이었는데 학생들이 묻기를 제가 언제 가장 행복하냐고 하더군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너희들이 조금씩 조금씩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입니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결의 사람들이 좋은 모습으로 변화될 때 가장 행복한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나와 함께 있는 누군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지켜볼 때 그것은 나에게도 역시 삶의 커다란 행복이 됩니다.

위원회 산하 센터에 입소하는 여성분들이나 아이들의 첫인상은 모두들 어둡습니다. 삶의 어두운 터널에 갇혀있는 상황들이 대부분인 까닭이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조금씩 변해갑니다. 표정이 밝아지고, 말도 점점 많아 집니다. 나름의 요리솜씨를 뽐내기도 하고 나중엔 환하게 웃기도 하고 박장대소를 터뜨립니다. 그러한 변화를 곁에 지켜본다는 것은 정말 큰 놀라움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행복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모습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으로 경이로운 일이자 커다란 선물입니다.

간혹 센터를 떠나는 이주민분들로부터 편지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툴게 한국어로 적기도하고,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모국어로 적어서 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 편지들을 차곡차곡 모아서 잘 간직해둡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국을 떠올릴 때 행복했던 기억만 자리잡기를 조용히 기원해 봅니다.

신자공동체안에서 우리들은 다른 이들을 부를 때 형제님, 자매님 하고 부릅니다. 주님안에서 가족이란 뜻이겠죠. 그렇게 우리 모두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의 불행에 대해 책임이 있고, 너는 나의 행복에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누군가가 불행하다면 그것은 그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이기도 한 것이고, 내가 지금 행복하다면 그 행복이 누군가의 불행을 담보로 하는 것은 아닌지 조용히 성찰해 봐야할 것입니다. 후원자 여러분께 변함없는 감사를 전하며 오늘도 '나만', '너만'이 행복한 날이 아닌,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함을 공유할 수 있는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주교서울대교구 이주사목위원회 위원장 남 창 현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공동체 소식

#### 서울대교구서 사제품 받은 베트남 타이빈교구 트란콕퐁 신부 소식\*

서울대교구 사제서품식이 2월 1일 고척 스키돔에서 거행되었습니다. 서품 받으신 신부님 중 이주사목위원회와 인연이 깊은 신부님이 계셨는데 베트남 타이빈 교구 소속인 트란콕퐁 신부님이십니다.



트란콕퐁 신부님은 서울대교구의 도움으로 사제품을 받은 타이빈교구의 두 번째 사제입니다.(첫 번째 사제는 2014년 2월 수품한 부텐두안 신부) 베트남의 복음화율은 7%로 한국보다 낮지만, 인구(9616만여 명)가 많아 신자 수는 한국보다 100만 명 이상 많습니다.

트란콕퐁 신부님은 현지에서 일반 대학을 졸업 한 후 뒤 늦게 성소를 발견하여 2010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유학길에 올랐다고 합니다. 신학대학교를 다니면서 2015년 6월 저희 이주사목위원회 산하 이주노동자 상담실에 오셔서 베트남 이주민들과 함께 하며 그들의 고충 상담을 들어주셨으며 여러 가지 행사에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주셨습니다.

트란콕퐁 신부님은 2년 여 간 한국에 더 머물면서 영성심리상담을 공부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품 받으신 트란콕퐁 신부님의 영육간의 건강을 위해 후원회원 여러분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톨릭평화신문 2018. 2. 11. 발생 1452호 일부 발췌)

#### 공동체 연합행사 소식\*

남미공동체, 중국공동체, 마교네공부방의 어린이 40명이 지난 1월 19일 양평 외갓집 체험마을에 다녀왔습니다. 일일체험으로 어린이들은 겨울방학을 이용하여 뜻 깊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평소에 자주 해 볼 수 없었던 연 만들기, 얼음치기, 얼음썰매도 타보고 메밀떡볶이 만들기 같은 생소한 체험도 할 수 있었습니다. 외갓집의 삼촌, 이모의 인심을 간접적으로 느껴보고 다양한 활동들로 한국 농촌에 대해 조금이나마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추운 날씨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좋은 추억 만들고 잘 귀가하였습니다.



#### 베들레헴어린이집 소식\*



▲ 뮤지컬 관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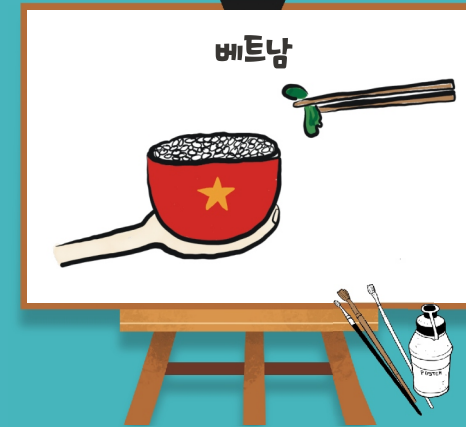
▲ 독립공연예술가 1인극 관람

#### 몽골공동체 피정 소식\*

몽골공동체는 '너 어디 있느냐?(창세 3,9)'를 주제로 1월 20~21일에 대천 요나 성당으로 1박 2일 피정을 다녀왔습니다. 4명의 신부님 지도로 28명의 신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신부님 모두 몽골에서 사목하고 계시거나 향후 사목하러 가시는 신부님들입니다. 이번 피정에서는 신부님들의 말씀과 단편영화 감상, 그리고 침묵기도와 고백성사, 몽골 미사로 진행되었습니다. 신부님들 덕분에 신심 깊은 시간을 보내고 귀가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신부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문화알림 식사에절 1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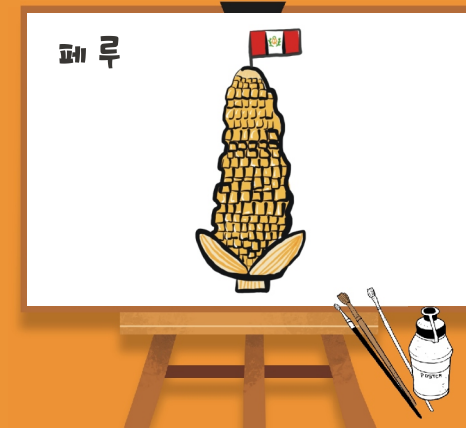


베트남의 전통 식사에절은 반찬을 먹을 때 직접 입으로 가져가지 않고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하며 탕이나 찌개 같은 국물 종류는 큰 숟가락으로 자기 그릇에 떠서 먹어야 합니다. 어른 앞에서 젓가락으로 밥그릇을 치지 않으며 음식을 먹을 때 소리를 내면 안 되고 한 번에 많은 음식을 입 속에 넣고 씹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또한 탄 밥을 먹으면 나쁜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여 먹지 않고 상대방이 자신에게 음식을 집어 줄 때에는 밥그릇을 내밀어 받아야 하며 젓가락으로 받는 것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고개를 숙여 숟가락으로 밥을 먹지만 중국에서는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는 것은 동물이 먹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중국의 쌀은 한국처럼 점성이 없기 때문에 찰지지 않고 쌀들이 흩어지기 때문에 밥그릇을 들어 손 위에 받쳐 놓고 젓가락으로 먹어야 합니다. 숟가락은 탕 요리나 국을 먹을 때 사용하고 밥은 젓가락으로 먹습니다.



한국인은 보통 음식을 남김없이 먹는 것을 예의라고 여기는데 중국에서는 음식을 조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중국인은 다 먹기 힘들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진 식사를 최고로 여깁니다. 그래서 음식이 맛있다고 그릇을 싹싹 비우면 '음식이 부족해 만족스러운 식사를 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전달된다고 합니다.



왼쪽에 포크, 오른쪽에 나이프로 셋팅 되어 있으며 오른손으로 나이프를 들고 잘라서 왼손인 포크로 식사하는데 제일 중요한 매너는 양손을 항상 테이블위에 올려 두어야 합니다.

한국의 쌀처럼 페루에서는 옥수수가 주식입니다. 페루 속담에 '옥수수를 흘리고 줍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할 정도로 옥수수를 신처럼 생각합니다. 옥수수를 신성시하므로 남기거나 버리면 안 됩니다. 심지어 페루의 신은 옥수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